

제236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제1차 정례회)

# 본 회 의 회 의 록 (개회식)

해운대구의회사무국

2018년 9월 4일 (화) 오전 11시

제236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제1차 정례회) 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개회사

1. 폐식

(사회 : 의사팀장 박현

주)

○의사팀장 박현주

(10시 59분 개식)

지금부터 제236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 반주에 맞춰 1절을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명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람중심 미래도시 해운대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不撤晝夜] 수고하시는 홍순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상관측을 한 이후로 제일 더웠다는 울여름, 현장을 누비며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아울러 찜통더위와 싸우며 헌신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이번 여름 우리 해운대에는 다양한 축제와 함께 국내외에서 찾아온 많은 피서객들로 활기를 띠었고, 전국 최고의 휴양지답게 큰 사랑을 받았던 만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해수욕장

## 2 (제236회-개회식)

관리와 피서객 안전을 위해 땀 흘리며 헌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 또한 예년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특별히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순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36회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함께 2017회계연도 결산을 심의하게 됩니다. 결산 심의는 결산 승인을 위한 단순한 요식행위가 아니라 내년도 예산 편성의 방향을 정할 뿐만 아니라 건전 재정의 기틀을 마련하는 아주 중요한 기초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본래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불필요한 낭비는 없었는지 주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잘된 사업은 진심으로 칭찬해 주시고, 잘못된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추상같은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줌으로써 정책 의회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다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결산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행적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42만 해운대 구민 여러분, 이제 조석으로 가을 기운이 완연합니다. 고진감래[苦盡甘來]라는 말처럼 뜨거웠던 여름을 이겨낸 우리에게도 이제 풍성한 결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올 추석은 여러분 모두 훈훈하고 풍성한 명절이 되기를 바라고, 아울러 주변의 힘든 이웃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는 따뜻한 명절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구민들의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을 위하여 청소, 의료, 재난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팀장 박현주

이상으로 제236회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 06분 폐식)